

「간디」思想研究, 自我로 超越하여 愛他主義에(제6회)

朴魯哲

(二)印度教 中心思想概觀

【1】種性階級(續)

이로 보아 『간디』는 印度敎理에 依하여 四種姓의 區別을 拒否하여왔음을 알 수 있는바 본이 印度에서는 古來로 四階級에 對한 區別이 嚴酷하여 食事, 供獻, 婚姻, 禮拜, 集會, 儀式 等に 差別이 極甚한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간디』는 印度敎 敎徒중 간혹 四種姓의 區別을 가지고 있는 信徒를 볼 때, 그들에게 敎理로서 鞭撻하며 懲罰하기에 마지 안했으니 그는 전혀 印度自來의 四種姓의 區別과 그 制度 또는 優越感을 打破하기에 힘쓰므로 더욱 四階級の 親睦과 結合으로 印度運動에 만흔 效果를 내었다고 본다. 이리하여 『간디』는 印度敎 敎徒들의 優越感을 가지게 됨은 도리어 그 信仰을 誤信케할 뿐더러 그 敎理를 違反케됨으로서의 神에게 冒瀆된다는 意味로 말한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간디』는 四階級을 革辟할수없다. 이름은 곧 印度民族의 唯一한 四種姓의 이름을 維持함으로서 절대로 그 階級間의 區別과 優越感을 두는것은 아니다 하였다. 그러것갓다. 그 실四種姓의 이름을 가지고 있더라도 階級間에 何等의 區別과 優越感이 업는 以上 卽 平等博愛 또는 正當한 自由 扶助 協同으로서 結合된다면 이박게 다른 問題가 생기지 안 慮줄 안다. 이럼으로 四種姓중에 第一位를 占한 婆羅門種姓과 그 末端에 이르는 首陀姓(奴隸)과 第三位에 이르는 毘利舍(平民)와 더불어 食事, 禮拜, 集會를 함께 하되 조금도 優越感을 두지 안는 다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나는 생각하여 본다. 만일 大聖 『간디』가 正統派的 印度敎의 一敎人으로서 태어나지 안코 그대로의 純醉한 無宗教的 革命家로 태어났더라면 그 아무리 上古로부터 嚴格하게 지켜 내려온 四種姓制度의 鐵則이 었더라도 截然이 打破하지 안 慮수 업는 것이 아니라하는 것이다.

(2)輪回說

『산디』는 正統派的 印度敎의 信者로서 『베다』(Veda) 『우파니샤드』(Upanishad) 『기타』(Gita) 『오푸라나』(Purana) 등의 印度敎經典의 敎理와 쏘는 『아푸타라스』及 再生을 미듬으로 다음과 가튼 말을 하얏다.

『印度敎徒는 一神敎를 信奉하며 쏘는 그 再生及 救援을 밋는다. 어셔한 國家든지 그 勃興期에 잇어서는 苦難을 겨겨서 樂土에 들어가지 안흔 나라가 업다. 母는 그 子女의 生을 爲하야 苦痛을 맞지 안 홀수 업스니, 比컨대 麥의 生長에 잇어서 그 種子의 枯死를 바라지 안 홀수 업는 것처럼 卽 生命은 死로부터 나오는 것이니 印度는 이 奴隸의 狀態로부터 更生함을 求하야만 된다』라고 이로 보아 『산디』는 印度敎理에 依하야 『아푸타라스』(化身)와 그 再生을 밋는 동시에 쏘는 政治的 意味에 잇어서도 印度民族의 將來享有 幸福을 祝願함으로 이가튼 比喻를 든 것이니, 이는 現時印度民族의 그 奴隸的 苦海를 超脫하야 장래 新生の 曙光에 依하야 自由의 樂園에 들어감을 말한바 이는 마치 麥의 種子가 그 腐化로 말미암아 새싹이 나오는 것처럼 印度民族의 現在 여러 가지-重疊된 受難時代를 지나고서야 아프로 再生의 新天地를 바라보게 된다는 意味이니, 이는 宗教的 輪回說에 對한 再生으로서나 쏘는 政治的 革命의 新 建設로보아 그 意味가 同一한 因果를 맺게 되는 것이니, 이에 對하야 『산디』는 印度敎의 輪廻思想에 政治的 革命要素를 包藏함으로써 이는 印度解放運動의 그 將來 幸福을 暗示함에 지나지 안는 것으로 보게 된다. 이에 對하야 印度古來의 輪回說에 關한 例를 한 마디 들자.